

보도자료

2010년 1월 28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 강도현 과장(☎750-2130)
융합정책과 이상철 사무관(☎750-2134) yscheol@kcc.go.kr

방통위, 제1차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 **- 방송통신융합을 서비스간 접목에 활용하여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활성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목) 오전에 KT, SKT, LGT, CJ 헬로비전, 삼성 SDS, LG CNS, 안철수연구소 및 분야별 서비스 관련기관 등 총 2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 「민관합동추진협의회」(26개 기관, 29명),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방송·통신과 의료·교통·교육·금융·법률·유통·u-City 등 분야별 서비스가 합쳐져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융합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제공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산업·행정 등 전 부문에 걸쳐 빠른 속도로 정보화가 확산되어 수준 높은 정보화 사회를 이루어 왔으나 그간의 정보화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활용적인 측면이 미약하였다.

최근 광대역통합망 구축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고품질의 영상 통신 활용과 스마트폰의 보급, 사업자의 창의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성장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인터넷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DCATV, WiBro, IPTV, 3G 등을 활용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출현과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매체간의 연동으로 고도화된 융합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협의회는 그 동안 각 사업자별로 표방한 방송·통신과 타분야의 연계방안(예 : KT SMART, SKT IPE, LGT 脫통신 전략)들이 한자리에서 발표되고, 특히 CATV 업계의 CJ 헬로비전은 물론 의료서비스 분야 수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향후 전략발표가 있었다.

① KT는 “ICT를 이용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GIS기반 이동체 서비스”, “u-Health”, “Flexible Working”, ② SKT는 “Smart&Green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IPE 전략”, ③ LGT는 “M2M(사물통신)”, “Smart Grid”,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가정에서의 유무선 통합상품” 등 제공, ④ CJ헬로비전은 “융합서비스 제공현황 및 발전방향”,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서비스 시범사업(미래형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발표

오늘 협의회는 방송통신 업계와 각 서비스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융합서비스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의 발전된 방송·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융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서비스업 GDP 비중은 미국 75%, 이탈리아 72%, 독일 71%, OECD 평균 71%, 한국 58%, 서비스 분야 생산성은 한국 100, 미국 253, 일본 188, 영국 155

방송통신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09. 2~3월)를 한 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선정('09. 4~6월)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개발·상품화 하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애로 해소와 법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의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정부의 의지들이 잘 활용된다면 제2의 IT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붙임 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추진방향(안), [붙임 2] 민간업체 녹색융합서비스 전략 발표 자료 요약, [붙임 3]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구성현황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 제2의 IT도약을 위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추진방향(안)

I. 추진배경

1. 정보화 성과

□ (정보화 성과)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으로 경제·산업·행정 등 전 부문에 걸쳐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

- 정부의 선두자로 인한 초기 수요창출, 전자정부구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으로 수준 높은 정보화 사회 건설

<국가정보화 예산 및 UN 전자정부지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액(억원)	28,445	29,052	34,343	34,104	33,960	31,555	33,651
전자정부준비도 지수(순위)	5	5	-	-	6	-	1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UN경제사회국, 2010

□ (성과평가) 그간의 국가정보화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활용적인 측면을 간과

- 정부주도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상용서비스 미흡 등으로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함

<IC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2003	2004	2005	2006	2007
기 여 율(%)	39.3	30.6	26.2	20.9	14.4

※ 자료 : 한국은행, 2008

- ▶ 정보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 구축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녹색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2. 융합서비스의 등장

□ (융합서비스) 네트워크가 광대역화로 발전하여 광대역통신망을 기반으로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융합서비스가 등장

※ 융합서비스는 각 부분간의 이종교배를 통해 가능하게 된 새로운 서비스(EU Green Paper, '97)

-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각각의 서비스 양상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가속화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전개과정과 융합화>



※ 자료 : 방송통신 융합 동향 연구(전파연구소, 2008)

□ (서비스의 진화)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 상품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로 진화

-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 융합, 핸드폰, TV, PC 등 단말기기의 융합, 방송과 통신 또는 기타 서비스가 합쳐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 융합서비스는 ICT와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

3. 융합서비스 추진환경

□ (융합서비스 출현) 광대역통합망 구축과 스마트폰의 보급, 사업자의 창의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

○ 광대역통합망 구축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고품질의 영상통신 활용이 가능한 환경 도래

○ 스마트폰의 성장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인터넷 시대 도래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

·무선가입자망은 '13년까지 10M급 속도의 3G/4G 상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망을 구축하고 총30만 가입자 수용 계획

<무선인터넷 이용률>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이 용 률(%)	27.4	36.1	40.2	42.8	47.7	52.5

※ 만12~19세 인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이용률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 (융합기술 성숙) IPTV, DCATV, WiBro, 3G 등을 활용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출현과 단말기술, 영상통신기술 등이 성숙단계에 진입

○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매체간의 연동을 통한 고도화된 융합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으로 융합기술의 활용성 증대 필요

○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 및 실시간으로 누구와도 실감나게 편리한 입력방식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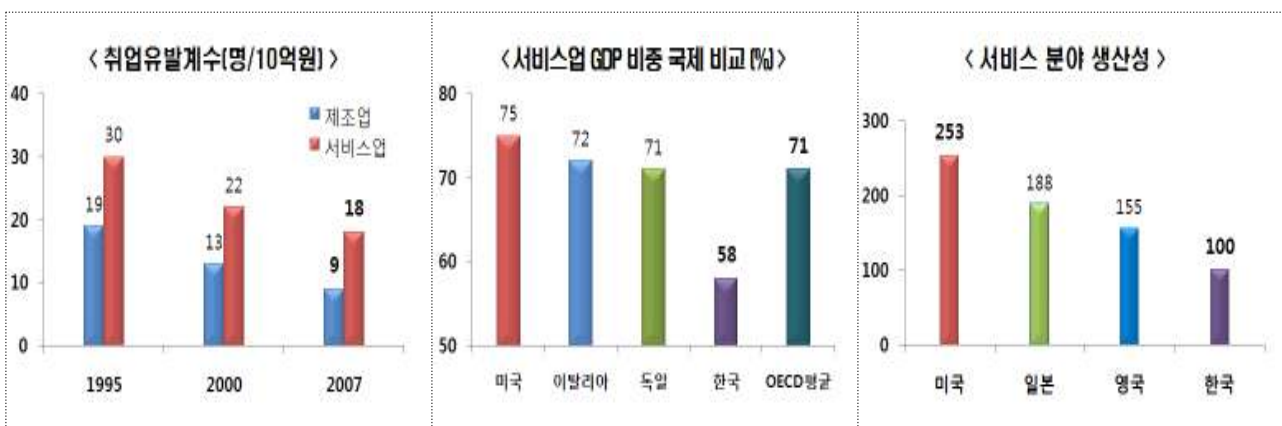
□ (IT의 활용) 낮은 생산성을 IT를 활용하여 극복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조성

○ IT와 타서비스와의 융합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맥킨지, '09)

※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방송·통신 산업은 생산성과 고용 증가 측면에서 리더가 되는 성장주도형(Growth Drivers)산업으로 간주

<주요 국가 서비스산업 현황>



※ 자료 : 기획재정부(2010 경제운용방향, 서비스선진화방안)

< 시사점 >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

◇ 광대역통합망의 구축, 스마트폰의 보급, 방송통신 사업자의 융합서비스 발굴 노력 등이 가시화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추진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
제2의 IT 도약을 위한 민·관의 이해가 일치

II. 국내외 동향

1. 글로벌 동향

- (CIT의 등장) 유통·금융·의료 등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에서 IT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출현

※ CIT란 Convergence IT로 이종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의미

- IT기술과 타 산업간의 이종 융합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도모

업 체	결합 유형	사업추진방향
메트로(독일)	유통 + IT	퓨처스토어에서 무인정산시스템 구현하여 IT를 통한 쇼핑 편의성 제공
ANZ(호주)	금융 + IT	일부 점포에 스마트브랜치 시범서비스를 통한 티켓예매와 원격 재무상담 가능
카이저병원(미국)	의료 + IT	병원 고객의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을 예측하고 고지
BMW(독일)	자동차 + IT	차량도난·파손 시 차주인에게 무선 알람, 최단시간 목적지 도착 안내

- (IT기업의 신사업 진출) 우수 기업들은 고유영역을 파괴하고 IT와 접목된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

업체	기존 사업	서비스 추진 현황
BT	통신업체	·'이동형 오피스' 서비스로 기업업무 종합 솔루션 제공
Cisco	장비업체	·UC기반의 영상회의 솔루션 제공, 'u-City 서비스' 개시
Google	검색업체	·스마트폰(개방형 안드로이드 SW 적용) 제조기업으로 영역 확장
MS	S/W업체	·VOD 서비스가 가능한 Window 7 출시를 통해 미디어 서비스 강화

i) 이동형 오피스(BT) : 유선사업의 한계에 직면하였던 BT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영상회의 시스템과 각종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지능형 오피스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

ii) u-City 서비스(Cisco) :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등에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교통시스템 제공

2. 국내 동향

□ (IPTV의 출시) IPTV로 인해 융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IC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이 미비

※ '08.12월에 IPTV 상용화서비스를 시작으로 최단기간에 174만명('09.12)가입자 유치

- 의료·금융·교육·교통 등 서비스 분야와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아 ICT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모색

□ (ICT 기업의 변화) 전통적인 통신업 중심의 비즈니스 한계를 인식

- 통신사업에서 탈피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통신과 서비스의 융합 등 침체된 기업성장의 활로를 위한 신사업 발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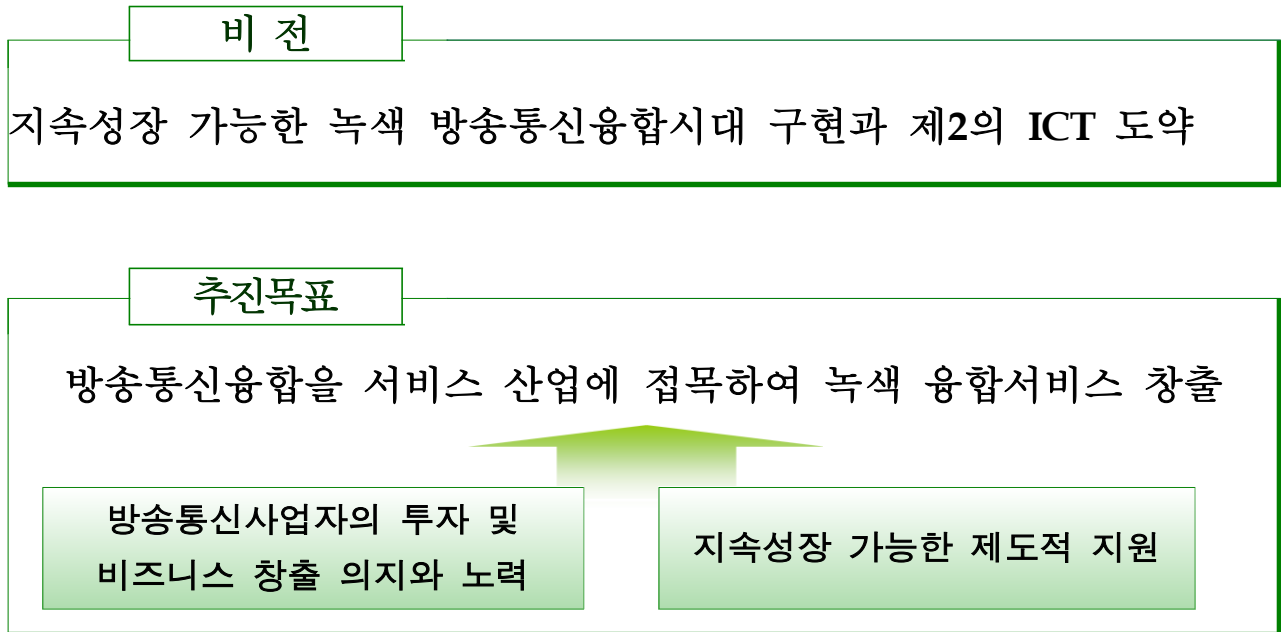
업체	주요 전략	주요내용
SKT	IPE 전략	·유통·물류·금융·교육·의료·제조(자동차)·주택/건설·중소기업 등 8대산업과 협력모델로 타산업 생산성 향상(IPE) 추진
KT	Convergence & SMART	·B2B 시장을 6개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유무선 네트워크와 영상통신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
LGT	脫 통신화	·20여개 탈통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신성장 사업발굴을 위한 과제 선정 착수

< 시사점 >

- ▶ 사회적 (사회적비용 증가, 노동생산성 감소, 저출산고령화) 현안 해결과 녹색 성장을 견인할 ICT와 타 산업간의 융합서비스 창출이 필요
- ▶ 기업의 CIT 전략 추구에 따른 정부의 조기 대응과 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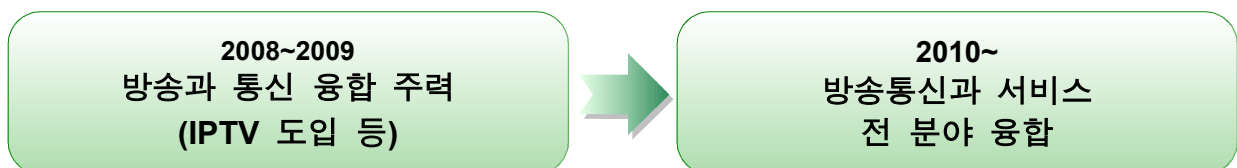
Ⅲ. 추진목표 및 전략

1. 비전 및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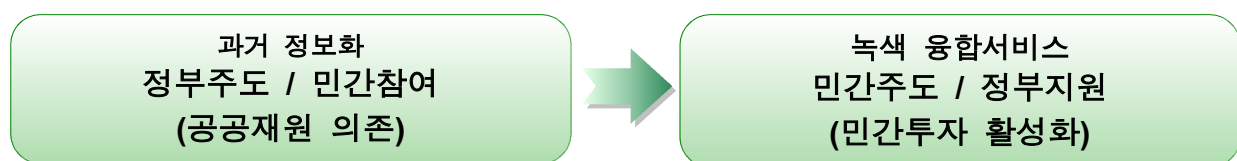


2. 추진전략 및 방법

- (추진전략)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서비스 분야 전반에 ICT 융합전략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녹색성장에 기여



- (추진방법) 민간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상품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공 수요 조사 후, 전략분야 시범사업 및 각 분야 확산 추진



3. 추진방향

- (추진방침) 방송·통신을 분야별 서비스에 접목하여 사회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융합서비스 추진
- (시범사업)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융합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적용

분 야	서비스 내용(예시))
복 지	의료 진료상담 및 진찰결과 조회, 질병관리 및 의약품 정보 영상서비스 적용
	노동 언제·어디서나 소통 가능한 원격근무 영상회의 솔루션 보급
	교통 방통융합망 및 CCTV를 활용한 다매체 교통영상정보 제공
사 회	교육 양방향성을 촉진하고 수준별·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TV기반 T-러닝 구현
	행정 TV기반 민원신청·안내, 열람서비스 등 효율적 대민서비스 제공
	법률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통신 기반의 법률상담
경 제	기업 중소기업 대상 방송통신융합 경영지원 CUG 서비스
	금융 홈 ATM, 모바일 증권 트레이딩 및 결제 서비스 등 제공
	농수산 생산성·소비자편익 증진 관련 온살·품질관리, 이력추적, 물류정보 등 융합서비스 확산

구 분	현 행	향후 추진방향
지원대상	IPTV 공공서비스	다매체 기반 융합서비스
지원매체	IPTV	DCATV, IPTV, 3G/4G, DMB, Wibro 등
이용자	시범가구이용(600여개)	가입자 전체이용(상용화)
서비스개발	정부 수요조사 및 BM발굴	민간 주도 서비스 발굴 및 정부지원
추진방식	IPTV 3사 호환추진(통합센터 OSMU)	민간사업자 특화추진

- (협의회 구성) 방통위 상임위원(의장), 방송·통신·포털·정보보호 사업자 대표, 분야별 서비스 전문가, NIA 등 30명 이내의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향후계획) 전략과제 도출 및 각 부처·사업자 대상 수요조사(2~3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 선정·시행(4~6월), 7월부터 서비스 확산

민간업체 녹색융합서비스 전략 발표자료 요약

1. KT 스마트 컨버전스 전략

□ 그린 컨버전스 비즈니스

o Green of ICT(현재 모습)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그린DIC 구축	· 남수원 IDC 내 직류전원 도입으로 에너지 효율 20% 개선 · '13년까지 지속적 확장과 신기술 적용으로 IDC 전력소비 80% 절감 예정
NGN 구현을 위한 All-IP 구축	· 망 전체를 All-IP화(Green Network화)시킬 경우 연 200GW의 전력 절감, 8.9만TCO ₂ 감축 효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 KT 신사옥과 화성송신소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영, 연간 13만 kWh의 전기사용량과 1,100TCO ₂ 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클라우드 컴퓨팅 (HW 가상화)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국제적으로 연간 42.3만TCO ₂ 가 감축 · 도입확산에 따라 감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o Green by ICT(향후 추진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 국내외 관련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실증 분야별 적극 참여 - 홍보/주민설득 지원과 미래 서비스 개발 주도
GIS 기반 이동체 서비스	· 무선 센서망 기반 교통시스템은 교통관련 탄소배출량을 5% 감축시키고 이동체 운행 속도를 20% 향상
U-health	· 심장장애 환자들을 위해 심장센서를 통한 원격진료 서비스 확대 · PC기반 혈당 계측 장비를 활용해 당뇨병 환자의 혈당 데이터를 병원으로 실시간 전송
Flexible Working	·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내 도입할 경우 직원들의 물리적 이동이 최대 30%까지 감소 · 화상회의 1회당 일반출장 대비 탄소배출량 96.6% 감소

<그린 ICT의 효과>

· Green of ICT는 세계 탄소배출량 대상이 2%이며, 나머지 98%가 Green by ICT 대상으로, Green by ICT가 5.8배 경제적 효과 높음

*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25년까지 「of ICT」는 1.9조 kWh, 「by ICT」는 11조 kWh 전기절감 효과

· Green by ICT는 탈물질화(고탄소 → 저탄소) 유도, 2020년 전 세계적으로 4가지 산업군(운송, 산업, 건물, 전력)에서 ICT 활용시 CO₂ 배출량의 15% 감축 기대

□ Green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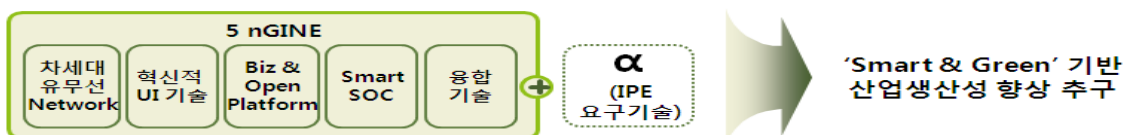
2. SK텔레콤의 새로운 성장방향(IPE를 중심으로)

□ 추진배경

- 기술·소비자·환경 측면에서 개별 산업영역별로 새로운 수요 발생
⇒ 'Smart ICT'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Green Growth'로 귀결
- Smart&Green World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무의 기능화, 상호 연결, 지능화가 요구 ⇒ Wireless Telecommunication의 역량이 중요
- Smart & Green 기반으로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Collaboration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교육·의료·자동차·공공·주택 등에서 협업을 통해 생산성 증대

□ IPE(Industry Productivity Enhancement) 전략

- 산업·공공분야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 추진
 - 네트워크 서비스, 솔루션,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차별적 가치 창출
 - 교육·의료·제조·금융·유통·물류·건설·중소기업과 도시 인프라, 공공교육·의료 등 산업별 Smart&Green 관련 핵심 수요 발굴
예시) 기존 의료산업은 타 산업간, 병원간 연계제한으로 중복비용, 불편 발생 ⇒ 첨단 B-ICT와 의료기관 협업 강화로 고객중심의 Connected Health로 진화
- 중소/벤처기업과 신상품·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여 글로벌 공동 진출
 - 대중소기업, 정부기관 등의 아이디어, 플랫폼, 솔루션 개발과 SKT 내부 역량 연계를 통해 산업·국가 수요에 필요한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
- IT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 투자 ⇒ 5 nGINE과 연계된 기술 역량 내재화



□ 장기목표 : 향후 10년 후 B2C 수준의 사업규모 달성(20조원)

※ 혁신사업 모델 Pilot Project 수행 → 국내 및 글로벌 거점 확보(3개 이상) → 세계 선도 Smart & Green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

3. LGT 신사업 추진 방향

□ 추진전략

- 脫통신으로 고객맞춤형 가치를 제공하는 창조적 상품·서비스 개발 및 타 산업 컨버전스 강화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 유무선 통합 및 타 산업과의 융합 본격화로 산업전반의 변화 가속화
- 시장환경 : 유선→무선, PSTN→VoIP, 국민 1인 1대 휴대폰 보유, 스마트폰 보급 확산
- 고객수요 : Life Style 변화와 통신의 교통, 의료, 교육 등 타 산업과의 연계 본격화
- 정책환경 :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ICT산업의 업그레이드 요구, 규제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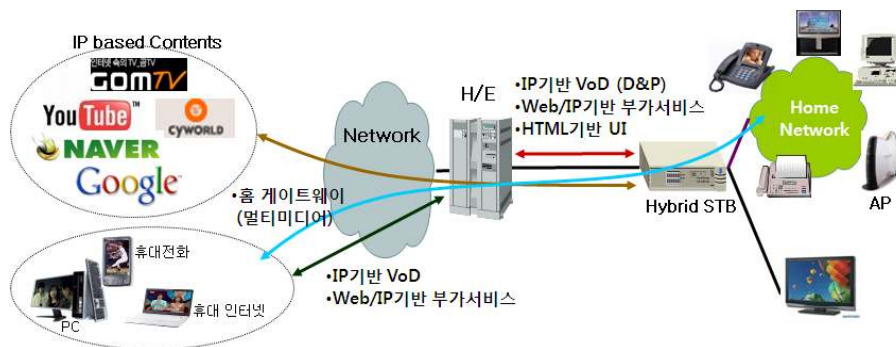
구분		시장니즈 및 규모	추진방향
기업	M2M (사물 통신)	·물류선진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녹색성장 구현 ·시장규모 1,110억('09)→3,070억('12)	·물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제공 - 타 산업과의 제휴를 통한 시장 확대
	Smart Grid	·정부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략 과제로 선정('08) ·시장규모 150억('09)→1,180억원('12)	·ICT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 에너지 산업과의 컨버전스 강화 - Smart Grid 실증사업 참여(제주)
	교육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시장규모 23조('09)→28조('12)	·저렴하고 효과적인 교육 솔루션 제공 - 사교육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e-learning platform 개발·제공
중소 기업	SEM ICT	·25만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규모 8.4조('09)→9.1조('1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표준화, 단순화, 모듈화
가정	FMC	·가격 민감도 높음 ·다양한 device의 활용(IPTV, PC, 휴대폰 등)	·다양한 Network 활용 ·유무선 통합의 상품 제공 - m-IPTV, m-VoIP ·혁신적 device 도입 - i-phone, android, Kindle 등
개 인	모바일	·무선인터넷의 대중화 요구 ·시장규모 9.2조('08) → 11.5조('12)	·유무선 cross-platform UI 도입 ·Killer 콘텐츠의 독점적 확보 ·open standard 채택

※ FMC : Fixed Mobile Convergence

4. 융합서비스 제공현황 및 발전방향(CJ 헬로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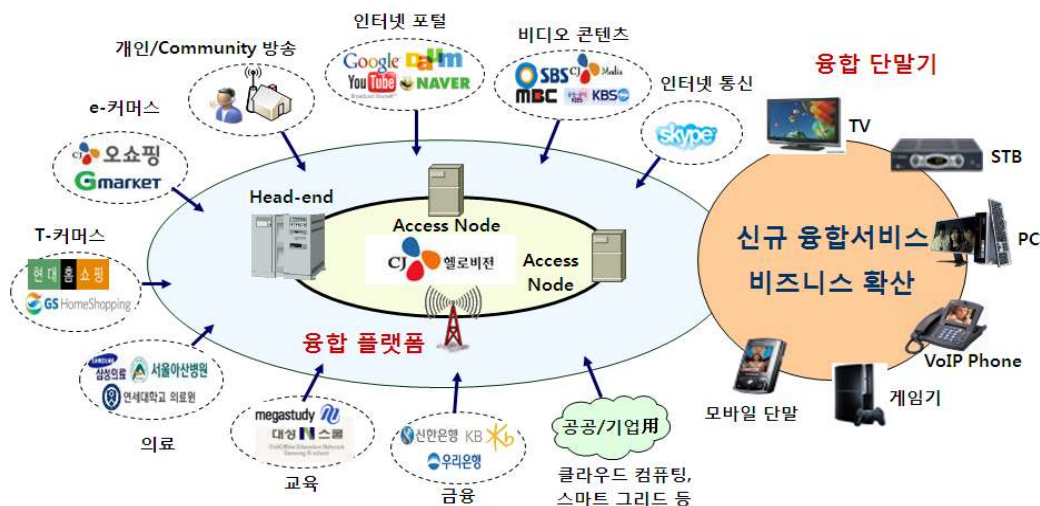
□ 융합서비스 제공현황

- 융합서비스는 TV를 이용한 데이터방송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윈도우 확산에 노력
 - 다음TV 검색, 실시간 검색, 엠넷뮤직 플레이어(인터넷 연동), TV만화 등
- 케이블 기반으로 대내 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케이블의 장점에 IP를 수용한 Hybrid 셋톱박스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 융합서비스 발전방향

- 홈게이트웨이는 대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로 대내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QPS 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 유무선 통합과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융합 비즈니스 확산과 TV·PC·모바일 등 다양한 단말기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변화



5. 공공서비스 시범사업-미래형 보건의료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서비스 개요

- 심평원 센터에서 원격의료 기반 조성, 환자와 의료기관·의사간의 의료상담 예약 및 원격 의료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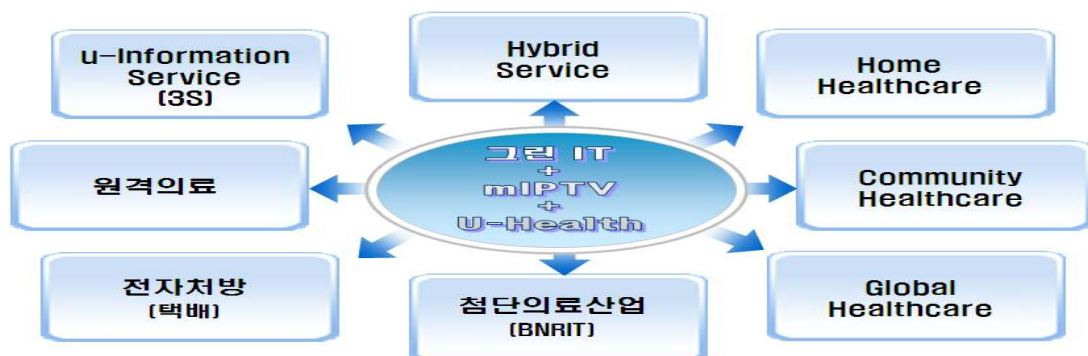
※ 국립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서울대치과병원에서 77건 예약, 38건 원격 의료상담('09. 12~'10. 1)

□ 주요내용

- 심평원은 원격의료, 전자처방, 환자이용, 진료예약, 화상관제 등을 중심으로 미래형 융합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원격의료, 전자처방	·오·벽지 의료사각지대 해소(의료안전망 구축) ·만성질환자, 임산부 주치의 제도와 결합 ·DUR(Drug Utilization Review)과 연계된 의약품 안전관리
환자이용·진료예약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의료접근 가계비용 절감
해외환자 화상진료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연계 원격진료 선도
전자상거래	·의약품 등의 상거래 투명화 및 유통구조 선진화
화상관제	·질 좋은 간병서비스, 국가질병 재난 대응체계, 119 구급지원센터 연계
영상정보표준화	·검사결과의 공동활용, 첨단의료기기 사업육성 ·의료 IPTV 국제특허 및 국제표준화

□ 미래형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향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기 관		직 위	위 원	비 고	
정 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형 태 근	의 장	
		융합정책실장	서 병 조		
		융합정책관	최 재 유		
		융합정책과장	강 도 현		
공공기관		단 장	이 영 로		
사 업 자	통 신	KT	부사장	김 일 영	전홍범 상무 발표
		SKT	전 무	지 동 섭	발표
		LGT	부사장	고 현 진	발표
	케이블	CJ 헬로비전	실 장	이 상 용	발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 장	윤 천 원	
	위 성	SKY Life	전 무	최 영 익	김영국 실장 대참
	IT	삼성 SDS	전 무	이 병 헌	
		LG CNS	부사장	김 도 현	
	정보 보호	안철수연구소	본부장	방 인 구	
서 비 스	의 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 장	최 유 천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실 장	정 승 열	
	교 통	서울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 동 진	
		도로교통공단	실 장	안 계 형	
	교 육	한국학술정보원	소 장	송 재 신	
		한국학원총연합회	회 장	문 상 주	
	금 융	기업은행	부행장	주 영 래	
		SK증권	전 무	송 성 근	
	법 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부 장	김 용 진	
	유 통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실 장	정 윤 용	
		농수산물유통공사	처 장	윤 장 근	
		u- City	u-City 협회	사무국장	민 병 호
	경기도		IT정책보좌관	양 재 수	
연구기관		ETRI(방통융합)	부문장	이 호 진	류원 부장 대참
		KISDI(미래융합)	실 장	고 상 원	

※ 향후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 및 관계자 추가 등 탄력적 운영

※ 제1차 민관합동추진협의회에 NIA 원장님 참석